

금메달 90개 이상 목표...5회 연속 2위 지킨다

北 참가로 亞45개국 전 국가 참여

광주·전남 선수·임원 100명 참가

양학선·이용대·이특영 등 金 유력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경기인 축구 예선전이 14일이나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인천 아시안게임은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6일간 36개 종목 439개의 금메달을 놓고 1만3000여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뽐낸다. 이번 대회는 북한이 참가하면서 아시아올림픽평

의회(OCA) 회원국 45개국이 모두 참여한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1986년 서울과 2002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번째 대회다. 경기장은 개·폐막식이 열리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 모두 48곳이다. 대회의 꽃인 개막식은 임권택 감독이 총감독을, 장진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있다.

36개 전 종목에 1200여명이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 이어 5회 연속 종합 2위를 지켰다는 각오다. 1위는 스포츠최강국인 중국이 확실하다.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프로젝트는 이미 완성됐다.

이번 대회는 2010년 광주우 대회 때보다 금메달 수가 37개나 줄었다. 하지만 7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4년 전에 비해 한국은 오히려 금메달 목표를 상

향 조정했다. 금메달 90개 이상이 목표다. 안방경기인 이점을 고려해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실제 한국이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90개 이상을 딴 것은 1986년 서울과 2002년 부산 대회뿐이다. 모두 안방에서 열린 대회다.

전통적 메달발인 사격 15개, 펜싱 7개, 양궁 6개, 태권도 6개, 유도 6개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광주우대회 때 부진했던 테니스에서 6개, 요트에서 4개의 금메달을 건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육상과 수영 등 19개 약세 종목에서도 19개를 따내겠다는 각오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양학선·이용대·김덕현·이특영 등 82명이 출전, 메달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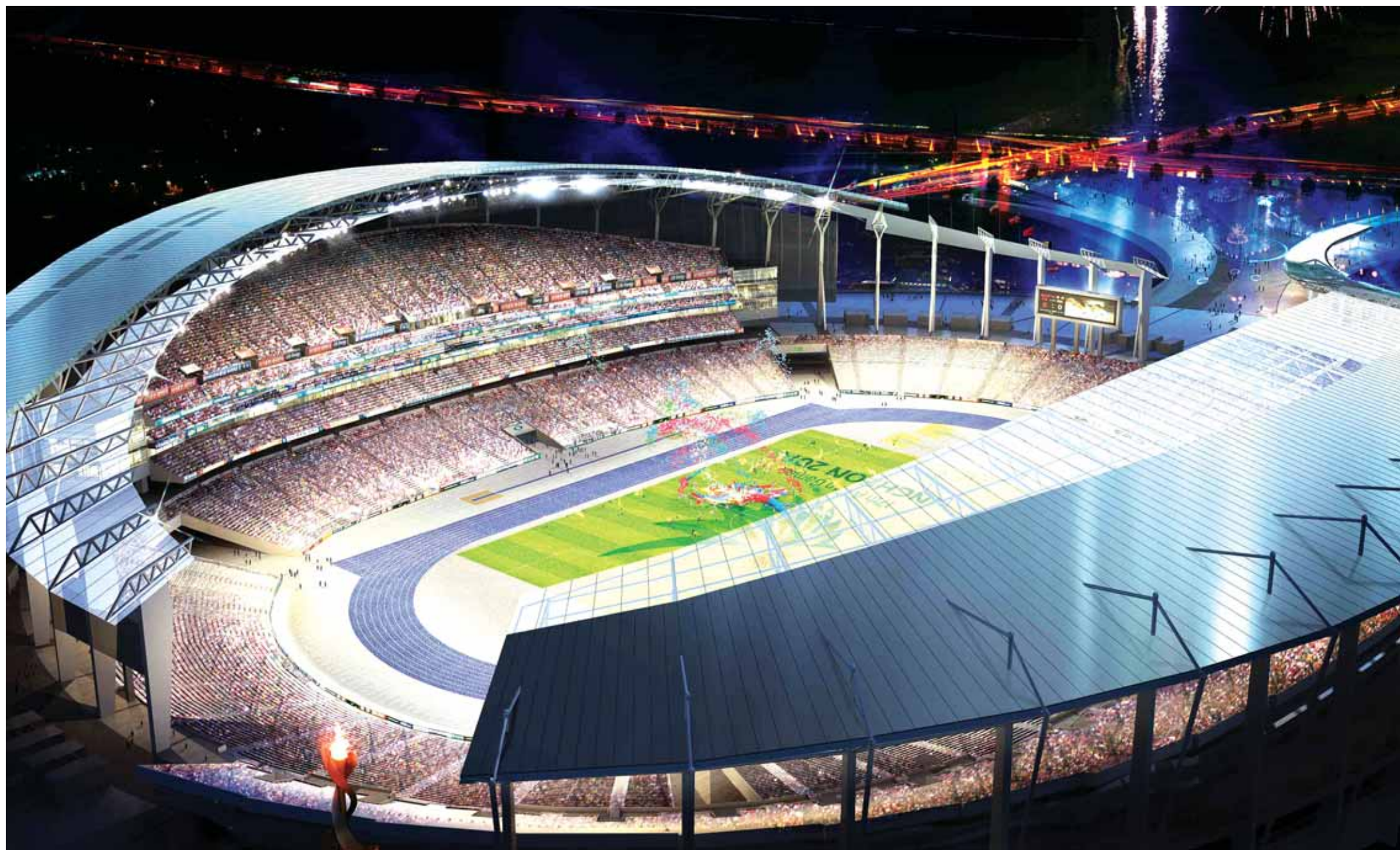
광주 선수단은 25개 종목에서 총 47명(임원 11명, 선수 36명)이, 전남은 27개 종목에서 53명(임원 7명, 선수 46명)이 된다.

광주 선수 중 김덕현(멀리뛰기·세단뛰기), 김성연(유도), 이특영(양궁), 양학선(체조), 최은숙(펜싱), 나지완·양현종·임창용·강정호·나성범(야구)은 금메달이 유력하다. 또 하키의 이승일·이승훈 형제도 금메달을 노린다.

전남에서는 이용대(배드민턴), 최복음·박종우·이영승(볼링), 김영웅(골프), 주현정(양궁), 이태양(야구), 이종호(축구)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14개 종목 15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북한은 10위권 진입 여부가 관심이다. 북한은 2002년 부산대회에 18개 종목, 184명이 출전해 금메달 9개를 따 9위에 올랐다. 북한은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들어올린 역도를 비롯해 유도·레슬링·복싱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자축구도 우승 후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는 19일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릴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제공〉

인천아시안게임 D-14

광주·전남 얼굴들

⑦ 양궁 주현정·이특영

초·중·고 7년 선후배 금빛 과녁 정조준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꼭 금메달을 안겨드리겠습니다.”

한국 양궁대표팀의 주현정(32·현대모비스)과 이특영(25·광주시정)이 아시안게임 양궁 단체전 5연패에 도전한다.

◇광주·전남의 딸 금과녁 정조준=곡성 출신의 만년 주현정은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주현정은 지난 5월 콜롬비아 메데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 1차 월드컵 연습경기에서 신기에 가까운 ‘로빈후드 애로우’를 선보였다.

로빈후드는 과녁에 명중한 화살 끝을 다른 화살로 적중시키는 것으로, 0.0058% 확률이다. 과녁 정중앙에 설치된 카메라를 깨는 ‘볼스아이’보다 더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이다. 주현정은 70m 거리에서 10점 과녁의 정중앙인 지름 4cm짜리 엑스텐(X-10)에 꽂힌 화살의 끝에 또 하나의 화살을 꽂았다. 로빈후드는 선전을 예고하는 길조로 여겨진다.

광주를 대표하는 신궁 이특영도 금과녁을 정조준했다.

이특영은 2008년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이후 국제대회에서 긴 공백기를 보내다 이번에 돌아왔다. 이특영은 “2007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힘겨웠는데, 메이저대회에 나가게 돼 너무 기쁘다”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계양양궁장에서

곡성 출신 만년니·광주 대표 신궁

아시안게임 女 단체전 5연패 노려

지난 5월엔 10년 묵은 세계기록 경신

훈련을 거듭한 만큼 열심히 해 좋은 결실을 내겠다”고 자신했다.

이들은 또 10년 묵은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는데 합작했다. 지난 5월 콜롬비아 메데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2차 월드컵 리커브 여자단체 대진라운드에서 함께 2032점을 기록, 10년 묵은 세계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주현정이 679점, 이특영이 678점, 장혜진(LH)이 675점을 기록했다. 한발당 평균 9.4점을 쏜 신궁의 경지다. 이 점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진라운드에서 박성현·이성진·윤미진이 작성한 2030점을 뛰어넘은 세계 신기록이다.

◇초·중·고 7년차 선후배=주현정과 이특영은 참 많이 닮았다. 태어난 곳은 곡성과 하순으로 다르지만 주현정이 걸었던 길을 이특영이 7년 뒤 따라 걸

었다.

초·중·고 동문인 주현정과 이특영 모두 두암초 4학년 때 활을 처음 들었다. 주현정은 호기심으로, 이특영은 양궁 감독이던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입문했다.

이들은 동명여중과 광주체육고로 진학해서도 똑같이 활시위를 당겼다. 특유의 고집과 약삭같은 노력도 닮았다.

다만, 주현정이 대가만성형이라면, 이특영은 조기 영재형이다.

주현정은 초등 6학년 때 광주 소년체전 단체전 2위를 한 뒤 동명여중과 광주체육고를 거쳐 현대모비스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꾸준한 실력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지만, 국가대표와는 인연이 멀었다. 그러다 실업생활 8년만인 2008년 뒤늦게 국가대표에 합류,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특영은 동명여중 2학년 때 소년체전 2관왕, 3학년 때 3관왕에 올라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했다. 광주체고 1학년 땀 김진호가 고2 때 세웠던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의 기록을 깨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 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개인전 은메달을 획득, 사상 최연소(만15세) 세계대회 제패라는 타이틀을 썼다. 서향순·김수영·윤미진으로 이어져 온 한국 양궁의 여고생 신화를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현정 선수.



이특영 선수.